

2024 수능대비 연습문항

제 1 교시

국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자유주의는 시대, 나라, 학자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이해되고 있어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지만, 근대 시민 사회를 만든 중산층 시민들의 사상체 내지 사고 방식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①보장하고 사회적 평등, 관용의 정신을 실현하는 것을 그 핵심적 원리로 하여 근대 이후의 사회 질서를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자유주의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다원주의와 함께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데, 자유주의의 흐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존 스튜어트 밀은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 영국 노동자들의 극심한 빈곤을 해결하고자 하며 공리주의를 주장하였다. 이들은 자본주의 체제를 기본적으로 ②옹호하면서도 다만 국가의 간섭을 가능한 한 배제하며 극단적 경제 자유를 추구하였던 자유방임주의의 실패를 지적하며 정부 개입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어떤 개인의 선호를 다른 개인들의 선호에 비해서 더 귀중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되며 오직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만이 중시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 만일 나의 선호를 충족시키는 것이 타인의 선호 충족을 혼란시키고 그 결과 사회의 선호 충족량이 전체적으로 감소된다면 나의 선호 충족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유지상주의를 주장한 로버트 노직에 따르면 사회의 정당한 역할이란 구성원 전체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자기 자신의 선호를 추구할 수 있는 자유를 갖도록 보장하는 일이다. 자유지상주의는 개인이 자신의 선호를 만족시키는 능력의 차이를 그대로 방임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사회는 심판자와 같은 것이 되어야 한다. 즉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지키는 것만이 사회가 할 일이다. 자유지상주의는 특히 경제적 자유에 대한 사회적 간섭을 경계하는데, 부의 상속, 사회적 특권, 재능 등은 개인의 자유를 행사하기 위한 보다 나은 조건일 뿐이며 사회가 나서서 이를 제거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자유지상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평등한 자유란 민족의 평등이 아니며 단지 인간으로서 갖게 된 자유의 권리다. ③행사하는 일을 방해받지 않으면 족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칸트로 대표되는 사회계약적 자유주의에 의하면 개인과 사회의 관계는 개인들이 상호 이득을 위해서 서로 맺는 계약과 같은 것이다. 모든 개인들은 자신이 가진 자유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를 보다 안정적으로 누리기 위해 사회를 형성하기로 계약을 맺고 그 사회에 일정한 권리와 책임을 양도한다. 이러한 계약이 장기적으로 볼 때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이 실제로 맺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를 볼 때 구성원들의 상호 이익을 위해 서로 맺은 계약의 결과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계약적 자유

주의에 의하면, 이같은 가설적 계약을 토대로 삼아 세워진 사회는 「선호를 충족할 평등한 권리」를 모든 개인에게 보장해 줄 뿐 아니라 타고난 능력, 재산, 사회적 지위 등 자신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는 다른 요인들에 관계없이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즉, 자유지상주의와 달리 사회계약적 자유주의는 평등한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운이 좋은 사람보다 운이 나쁜 사람에게 자원을 제공해 주도록 적극적으로 조종할 권리를 사회가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나)

자유주의는 현대 사회의 핵심적 합의들의 기초를 이루었지만 그 역시 한계를 지니고 있다. ④공동체주의자들의 비판 역시 자유주의의 한계점을 지적하는 데서 시작하는데, 개인주의적이고 경쟁적인 모든 사회 현상들이 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자기 정당성을 부여받고 이에 의해 공동체의 가치가 파괴되고 결국 공공의 생활이 파괴되는 것에 대하여 문제를 ⑤제기한다.

먼저 자유주의가 강조하는 ‘사회나 제도와 분리된 개인’이 과연 가능한가를 문제삼을 수 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완전하게 독립적일 수는 없다. 우리가 이 세계를 인지하고 이해하는 것은 일상 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나 개념, 기본 가정, 가치관, 선입관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마련이며 결국 이러한 영향 아래 있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⑥자유주의자들은 공동체를 개인이 사적인 목적에 봉사하는 수단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존재론적으로 개인이 공동체에 우선한다고 본다. 사회 계약론이 말로 공동체를 보는 자유주의의 관점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공동체를 보는 관점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던 사회 계약론은 당시의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사실적인 저술이라기보다는 당위적인 측면에 근거한 것이며, 정작 현실에서 과연 개인이 공동체를 선택하고 기본적 가치에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마련되어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공동체는 개인의 집합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독자적인 존재로서 끊임없이 개인과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자유주의자들의 공동체에 대한 이해는 추상적인 가정에만 기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 자유주의가 개인을 강조함으로써 이것이 현실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이기주의로 변질될 우려도 있다. 자유와 기회라는 이상이 실제적으로는 부와 권력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고 기득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패로써 개인주의나 권리의 불가침을 이용할 가능성 또한 존재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개인을 사회와 분리시켜 이해하고 사회와 분리된 개인만을 관심의 대상으로 삼는 자유주의는 오히려 개인을 왜곡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현실의 개인은 공동체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으며, 이해 관계가 아닌 타인의 배려에

의한 행동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유주의가 취하는 중립적이고 다원주의적인 전제와 이에서 비롯된 절차주의적인 방법론도 결국은 일정한 가치관을 ⑥~~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는 현대 사회에서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철학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현실적인 논쟁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특정 이론이 발달해 가는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서술하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특정 학자의 견해를 설명하여 그 의의를 밝히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특정 주장을 비판하는 입장을 제시하고 그 근거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특정 학자들이 주장한 핵심 이론을 열거하고 이에 대한 학문적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특정 학자들의 견해에 나타난 한계점을 제시하고 있다.

2.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리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며 경제 자유를 추구했다.
- ② 자유지상주의는 평등한 자유가 곧 민족의 평등이며, 자유 행사가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다.
- ③ 칸트에 의하면 개인은 자신이 가진 자유를 최대로 누리기 위한 계약을 실제로 맺고 사회를 구성한다.
- ④ 공동체주의자들에 의하면 자유주의자들은 공동체를 사적 목적의 수단적 의미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 ⑤ 현대 사회에서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대립과 관련하여 철학에 한해 끊임없는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3. 선호를 추구할 평등한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존 스튜어트 밀에 의하면 나의 선호를 충족시키는 것이 사회 전체의 선호 충족량을 감소시킬 때 주어진다.
- ② 로버트 노직은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유산 등 선천적 차이를 국가가 조정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 ③ 로버트 노직은 이를 위해서는 구성원 전체가 자신의 선호만을 추구할 수 있도록 사회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④ 칸트는 자신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는 능력의 차이를 그대로 방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보았다.
- ⑤ 칸트는 개인들이 상호 이득을 위해서 맺는 가설적 계약을 기반으로 형성된 사회는 이를 모든 구성원에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4.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개인은 끊임없이 사회와 영향을 주고받을 것이라고 보았다.
- ② ㉡은 개인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 권리의 불가침을 방해로써 이용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 ③ ㉡에 비해 ㉠은 공동체가 개인에 우선한다고 보았다.
- ④ ㉠과 달리 ㉡은 개인이 사적인 목적에 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동체를 이해한다.
- ⑤ ㉡과 달리 ㉠은 ‘사회나 제도와 분리된 개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다.

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자유방임주의는 각 개인이 합리적이고, 시장이 개인의 합리적 행위를 허용하며, 시장에서 여러 개인들의 행위를 순조롭게 조정하므로 정부의 개입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자유방임주의는 개인이 주어진 선택 상황에서 여러 제약 조건을 고려해 대안을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온정주의는 지도자나 제3자가 대신 정해주어 개인의 선택을 배제한다. 행동경제학의 사회철학인 자유온정주의는 정부나 제3자의 개입을 요청하면서도 선택을 유도할 뿐 최종 선택의 자유를 개인으로부터 박탈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어떤 대안도 배제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선택을 이 해당사자에게 맡긴다는 점에서 자유온정주의는 자유주의에 가깝다.

- ① 자유방임주의는 자유온정주의에 비해 개인의 선택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둔다.
- ② 자유온정주의는 자유방임주의에 비해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 ③ 공리주의자들은 자유방임주의 체제 하에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실현되지 못했다고 평가할 것이다.
- ④ 자유온정주의는 ‘정부의 개입 수준’의 측면에서 비교한다면 사회계약적 자유주의보다는 자유지상주의의 입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 ⑤ 공동체주의자들은 자유온정주의가 제한적으로만 정부의 개입을 정당화하고 최종 선택권은 개인에게 맡긴다는 점에서 이기주의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할 것이다.

6. 문맥상 ①~⑤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보증(保證)하고
- ② ⓑ: 두둔(斗頓)하면서도
- ③ ⓒ: 실현(實現)하는
- ④ ⓓ: 촉발(觸發)한다
- ⑤ ⓔ: 상정(想定)하고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